



세계연합신문
모바일 보기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



2025 APEC INCHEON
세계 최대 경제포럼 고역,
세계 최대 밴드오브리브
지속 가능한 스마트 마리도시
인천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제1355호 (2023년 1월 23일 화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난기류 돌출

韓, '사퇴 요구'에 "내 임기 총선 이후까지" 일축…김경율도 "변한 것 없다"



회의하는 한동훈 위원장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입장차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마이웨이' 입장을 확고히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

에서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전날 관계 보도가 나오자 "국민 보고 나선 일, 할 일 하겠다"며 공식 입장장을 발표한 데 이어 사퇴 요구를 재차 일축하며 당헌·당규에 6개월로 정해진 '비대위원장 임기 완주'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는 총선이 8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홀로서기' 행보를 시작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검사 시절부터 오랫동안 윤 대통령을 직속상관으로 모셨고, 현 정부가 출범하자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며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여겨진 그가 사실상 정치적 독립을 선언한 셈이다.

한 위원장은 특히 전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전달된 사퇴 요구가 과도한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해 대통령의 사퇴 요구가 있었고 이를 거부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김 여사 명품백 논란, 김경율을 비대위원장의 '마포를 출마' 사천(私薦)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인식이 윤 대통령과는 다르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한 위원장은 이번 갈등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김 여사 논란에 관한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를 묻자 "내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며 '국민 눈높이'가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부각했다.

김 비대위원 역시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내 거친 언행이 여러모로 불편함을 드린 점이 있었다"며 김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한 발언 등을 사과했지만, 회의 후 입장 변화 여부를 묻자 "계속 같은 생각이다. 문제를 거칠게 나눈다면

나는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과 김 위원회 이날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특별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대응책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당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사이의 갈등은 김 여사 관련 논란에 대한 두 사람의 근본적인 입장차가 본질이라는 분석이 많다.

총선 승리에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건 만큼 국민 여론의 흐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위원장의 생각과 부인의 '역울한'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이 충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당내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들의 여론몰이를 통해 한 위원장의 거취를 계속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한 위원장이 입장을 굽히지 않는 한 사퇴를 강제할 마땅한 방법은 없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비대위원장이 질위되면 후임 비대위원장 임명할 방법도 당헌·당규상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결국 김 여사 관련 논란이 어떤 식으로든 정리되지 않는 한, 여권을 혼돈으로 몰고 있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충돌 양상이 출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과 대통령실의 갈등은 얼마나 많은 총선에 '대형 악재'로 여겨지는 만큼 주변의 중재가 이뤄지고 양측이 '정치적 해법'을 마련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면 전망도 있다. / 강윤성 기자

농식품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이행 전담조직 구성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인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추진단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개 사육 농장과 음식점 등의 폐업·전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하위법령 제정에 나선다.

추진단장은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이 맡고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가 추진단에 참가한다.

농식품부는 추진단 내에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 추진팀'도 새로 마련했다.

또 추진단에서 자체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변호사, 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에 앞서 이행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차질 없이 개 식용을 종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양희승 기자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없앤다

단통법 전면 폐지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휴점합니다

※일요일은 정상영업합니다



정부는 22일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2014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웹 콘텐츠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웹 콘텐츠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새로운 형식의 신생 콘텐츠로서 일반 도서와 특성이 달라 획일적으로 도서 정가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외에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민생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관련 업계 및 일반 국민과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를 통해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

/ 송원기 기자

미래는 그냥 오지 않는다



"Hello, 미래!"

기다리기만 한다면
준비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힘이 될 미래산업
KDB산업은행이
키워가겠습니다

내일이 보고 싶다면 KDB산업은행

민주당, 강성희 강제퇴장에 “경호 빙자 폭력…尹 사과해야” 총공세

‘야4당 공동 규탄 결의안’ 본회의 채택 추진…운영위도 소집 요구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하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전주 방문 행사에서 일어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강제 퇴장을 연결 고리로 대여 파상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22일 이번 일을 ‘국회의원 폭력 제압 사태’로 규정하고 규탄하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원내 다른 야당과 함께 대통령실 규탄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고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서도 제출하기로 했다.

오는 24일 운영위를 열어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고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 질의도 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25일 국회 본 회의에서는 규탄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통령실에 강 의원이 대통령 앞에선 조금 조용히 국정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했다가 멀

어지자 조금 큰소리로 했다”며 “그러자마자 경호원들이 뭉쳐서 강 의원의 입을 막기 시작했고 사지를 들고 나갔다”고 했다.

그는 “언론은 과잉 경호라고 하는데 이건 엄격한 불법 행위”라며 “경호상 위해라는 것도 완전히 거짓 해명이다. 경호를 빙자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당시 경호원 처벌도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성윤 기자

‘술 취한 여성 성추행’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징역 2년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양(49) 전 미래당 공동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9일 추행야취·준강제 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오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오 전 대표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오 전 대표는 2022년 5월 15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지갑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오 전 대표 측이 ‘도와주려고 했다. 그러면 방치해야 되느냐’고 주장한 것에 대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적절한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며 “오 전 대표가 선택한 방법은 적절하지 않았고 그 이상의 선을 넘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오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전 대표 측은 “피해자가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피해자가 차도와 인도의 경계 지점에서 머리를 앞으로 기울여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 도와준 것”이라며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오 전 대표는 선고 뒤 “즉시 항소하겠다”고 말하며 재판장을 빠져나갔다.

/ 조규현 기자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방문한 김현숙 장관

부모 이혼으로 우울감 빠진 청소년, 디딤센터가 돋다

A(14)군은 부모가 이혼한 후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감도 생겼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갈등이 생기면서 등교를 거부했고, 무기력한 생활을 이어갔다.

변화의 계기는 학교 상담 교사의 소개로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16주 장기 과정에 입교하면서부터다.

A군은 상담과 치료, 진로 체험 등 다양

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디

딤센터는 A군의 보호자에게도 건강한 양

육을 실천할 수 있게 지원했다.

수료를 마친 A군은 대안학교를 거쳐 안

정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했다. 부모와의 관계도 개선돼 활발한 소통 속에서 일상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처럼 정서나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치유 프로

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디딤센터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DHD), 우울, 불안, 학교 부적응 등으로

가족이나 급우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숙형 치유시설이다.

상담 및 정신의학적 진료, 대안교육, 생활 보장, 진로 탐색, 각종 체험활동 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기 용인과 대구에서 장기과정(4주·16주)과 단기과정(11박 12일)으로 나눠 운영된다.

여가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디딤센터 치유 과정을 마친 참가자의 부정적인 정서와 비약한 대인관계 등 위험 요인이 입소 전보다 12.5% 감소했다.

반면 자기 이해와 삶의 만족도 등 긍정 지수는 11.9% 증가했다.

참여 희망자는 청소년안전망이나 디딤센터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찾으면 된다.

참가비는 월 30만원이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 청소년은 무료다.

/ 손현우 기자

신임경찰 사격·전자충격기 훈련 2배 확대…“현장 대응력 강화”

외근경찰 5만여명 사격훈련도 강화…빅데이터·과학수사 위탁교육 늘려



과학치안 연구개발로 만들어진 ‘보이는 112’

치안 수요 확대와 현장 대응력 강화 기조에 따라 올해 신임 경찰관의 사격·전자 충격기 훈련 빈도가 2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4년 경찰 인재개발 기본계획’이 최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인재개발 기본계획은 경찰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에 근거해 매년 수립

한다. 신임·기본·직무교육과 직장훈련 등으로 구분해 연간 교육·훈련과정의 내용과 운영방식 등을 규정한다.

올해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임 경찰관 총 5천여명이 의무적으로 받는 사격훈련을 290발에서 590발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이동식 현장사격 훈

련을 신설하기로 했다.

전자충격기 훈련도 3발에서 8발로 늘린다. 전자충격기는 권총과 비교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어 범죄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신임뿐 아니라 전체 외근 경찰관 5만여 명에 대한 사격훈련도 강화한다.

정례사격 외 수행하는 특별사격 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현장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별 실전형 훈련으로 개선한다.

특히 흉기난동, 사제총기 등 최근 위협이 커지는 시나리오에 맞춰 특화된 대응 훈련을 진행할 방침이다.

외근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전자충격기 실사격 훈련은 연간 2발에서 3발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스마트 사격훈련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배지환 기자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를 요구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지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케어 활동가 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 운동은 헌법에서



청과 춘천경찰서 직원 다수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범행 동기를 고려해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 사건 이전에도 처벌 전력이 다수 있어 뉘우치는 빛이 미약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며 “다만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에 대해서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 최형민 기자

에너지 나눔으로 세상을 더 따뜻하게

GS칼텍스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유 지원에서부터 단열, 창호, 고효율 보일러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까지 쉼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우는 일, GS칼텍스가 함께하겠습니다.

I am your Energy
GS 칼텍스

與 총선앞 ‘당정 충돌’ 혼돈…“한동훈 자기정치” “尹心 안통해”

친윤, 韓 거취 압박 ‘군불때기’…과거처럼 일사불란한 호응은 없어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거취 문제를 두고 수습의 갈피를 잡지 못한채 혼돈 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총선까지 8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가 정면충돌하는 조유의 상황이 벌어지자 당내에서는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겠나는 불안감과 당혹감이 새어 나온다.

한 위원장 취임 이후 ‘인적 쇄신’ 바람 속에 한동안 몸을 낫혔던 친윤(친윤석열) 계는 ‘김건희 여사 사과 불가론’, ‘김경을 사천 논란’ 등을 고리로 한 위원장을 겨냥하고 있다.

대통령 당선인 수행실장을 지낸 이용 의원이 전날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 김 여사 사과 문제와 관련한 글을 올려 한 위원장을 직격한 게 단적인 예이다.

이들은 한 위원장이 이번 총선 공천을 본인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 쓰고 있다고 도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 친윤계 의원은 “극한의 상황에서 당이 선택해야 한다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임시직인 비대위원장 사이 결과는 자명한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원은 “임기 3년 남은 대통령

을 상대로 힘 써움을 해보자는 것인가”라며 한 위원장의 ‘マイウェイ’ 행보를 거칠게 비난했다. 친윤계의 이런 거친 반응의 이면에는 취임 일성부터 ‘주류 희생’을 강조해온 한 위원장이 공천을 주도할 경우 낙천 가능성이 우려되는 이들의 불안감도 있다.



간담회 마친 한동훈 위원장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일각에서는 의원총회 등을 통해 한 위원장의 사퇴를 밀어붙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친윤계 의원은 “극한의 상황에서 당이 선택해야 한다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임시직인 비대위원장 사이 결과는 자명한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거 두 차례 ‘연관장 사태’ 때 와는 다르게 친윤계의 ‘군불 때기’에 협역 의원들로부터 일사불란한 호응이 없다는 점에서 사뭇 다른 기류가 감지되는 측면도 있다.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도 전날 밤부터 ‘침묵 모드’를 이어가고 있고, 공개 발언도 자중하는 모습이다. 경북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 현안으로 회동을 소집했다가 이 목이 쏠리자 자진 취소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한 위원장 거취에 대한 직접 언급은 “가혹하게 들리겠지만 스스로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평면 호사,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상실하면 선출직 당 대표도 퇴출된다”(홍준표 대구 시장) 등 일부 원의 목소리가 전부다.

비주류 일각에선 오히려 한 위원장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경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방선거 서울시당 공천 때” 모 인사들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공천을 하지 않을 것이면 내쫓겠다는 식의 협박을 받았다며 “당선인의 뜻이라고 팔았지만 모두 권력에 빌붙여 호가호위하는 인간들의 거짓이었다”고 썼다.

태영호 의원은 이날 채널A에 출연해 “한 위원장 사퇴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관해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와 손잡고

국민 앞에 나아가 ‘국민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실수를 했는데 가장 큰 책임이 남편인 저에게 있다’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빌면 어떨까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당 관계자는 “의원들이 이번에도 그저 ‘윤심’만 쫓아 주겠거니 기대하는 모양인데, 총선 공천 국면에서 손의 계산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전반적 여론은 어떻게든 양측이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절충점을 찾아가며 갈등을 봉합하라는 목소리다.

한 비영남권 중진 의원은 22일 통화에서 “왜 이런 소모적 감정싸움에 당이 희생돼야 하나. 수도권 선거는 포기하는 건가”라며 “당정은 운명 공동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감정적 대립을 해소하지 않은 채 양측이 ‘マイ웨이’를 계속한다면 선거 승리 가능성은 갈수록 희박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초선 의원도 “김건희 여사 상황은 대통령실이 당사자이고 그와 맞물려 총선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당이지만, 총선에서 과반을 얻지 못하면 이 정부도 실패한 정부가 되는 것”이라며 “이 시점에 양쪽이 점접을 찾지 않으면 결국 자멸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유를 불문하고 선거 목전에 지도부 붕괴 등 극한의 사태는 피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 이영찬 기자



이재명 대표와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

野, 공영운 前현대차 사장 총선인재 영입 실물경제 전문가, “혁신성장 기여하고 싶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4·10 총선에 투입할 ‘인재 9호’로 공영운(59) 전 현대자동차 사장을 영입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인재 영입식을 열어 공전 사장 영입을 발표했다.

공전 사장은 경남 산청 출신으로 진주 동명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문화일보 기자를 거쳐 현대차로 옮긴 뒤 흥보실장(부사장), 전략기획 담당 사장 등을 지냈다.

민주당은 보도자료에서 공전 사장이 현대차에서 해외정책팀을 신설해 국가별 수도에 거점을 만들어 법률, 통상, 환경 등 자동차 산업에 영향이 큰 분야별 이슈에 대응하는 전문가를 채용하고 글로벌 연결망 구축에 앞장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물경제 전문가로서 첨단 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역량을 발휘한 만큼 전통산업과 신산업 융합을 통한 혁신 성장을 견인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 송원기 기자

공전 사장은 현대차 재직 당시 해외정책팀을 만들어 미중 갈등,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문제에 대응할 기반을 마련한 경험을 토대로 민주당의 성장 관련 정책 추진에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영입식 행사에서 “경제 현장에서 큰 성과를 만든 공전 사장 같은 분을 모셔서 정책과 입법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생산 기반, 기업 정책 부문에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공전 사장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변해 공급망 변화나 자원 확보 문제가 기업들의 어려움이 됐다”며 “정치권이 여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장기적인 해결의 틀을 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전 사장은 “지금이라도 새로운 틀을 짜서 정권을 뛰어넘어 국가가 해줘야 할 일을 여야가 기본법을 만들어서 해보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 송원기 기자

이준석 “한동훈 사퇴 요구는 약속대련…애초에 기획된 것”

“중국집에 전화기 2대 있는 느낌…韓에 힘 쓸리는 모양새로 끝낼 것”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2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애초에 기획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을 잘 아는 모 인사가 내게 ‘이관섭 실장을 보낸 건 약속 대련’이라고 이야기하더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을 속된 말로 혼내거나 싫은 소리 할 일이 있으면 전화하거나 텔레그램을 하면 되는 것 이지, 굳이 이 실장을 보내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였다.

약속대련은 공격과 방어를 사전에 약속하는 태권도 용어다. 이 대표의 언급은 ‘한동훈 사퇴 요구’ 사태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사이에서 기획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어 “한 위원장 쪽에 힘이 쏠리는 모양새로 끝을 내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자기들 편에는 약속대련인데, 이 사람들은 내부적으로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당시 박근혜 비대위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한다”며 “외견상으로는 대충 싸우면 되는구나 생각하겠지만, 그때 그런 것과 느낌이 다르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와 한동훈은 다르기 때문

에 이렇게 해서는 그렇게 효과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2년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였던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차별화를 꾀하면서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이번 총선 상황은 그때와 다르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당시 비대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지지율이 30% 나오는 상황에서 그 30을 갖고 자기들끼리 ‘친윤’(친윤석열)이나, ‘친한’(친한동훈)이니 갈라 싸우고 있는 것”이라며 “아무리 싸우는 척해도 중국집에 (번호만 다른) 전화기 두 대 있는 느낌밖에 안 난다”고 평가했다.

/ 채형민 기자

새로운 선택 “공수처 폐지·법무장관 정치중립 의무화”



검찰 개혁 관련 정책 발표하는 김태섭 공동대표

금태섭 전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제3지대 신당 ‘새로운 선택’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금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세금만 낭비하는 공수처를 폐지하고, 검찰을 검찰답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금 공동대표는 “공수처 수사 대상 8천여 명 중 3분의 2가량이 판사와 검사인데 이들을 수사하려면 실력과 경험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다”며 “그런 경험을 가진 인력은 검찰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려면 검찰 출신 인력이 가야하는데, 이 경우 검찰을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며 “공수처는 검찰개혁 방안도 아니었고, 민주당이 개혁적으로 보이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금 공동대표는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도 법으로 정하겠다”며 “조국, 추미애, 박범계, 한동훈 등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극도로 정치적 인물들이 장관으로 임명돼 법무부가 ‘정무부’가 됐다”고 비판했다.

금 공동대표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수준의 품격을 갖춘 사람만 법무부 장관을 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이 측근을 임명해 법무부를 정무부로 만들면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금 공동대표는 이 외에도 검사의 수사자휘권 복구, 직급 수사 전문부서인 특수부(반부패수사부)의 숫자와 직무 범위를 통제하는 구상을 밝혔다.

한편, 이날 회견에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창당을 주도한 개혁신당의 김용남 정책위의장도 함께했다.

/ 권정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YOUR SAFETY IS OUR STANDARD

기분이 좋아진다고?
쉽게 살이 빠진다고?
마약은 환각, 맘상에 머리카락과 치아손실
피부괴사 등 무서운 고통을 줍니다

마약 앞에 나약하지 않아
We're Strong!
Support On Stop and Start SOS | 1899-0893

'5·18 평화 논란' 인천시의장 "정치 쟁점 악용한 누명"



'5·18 평화 논란' 기자회견하는 하석 인천시의장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돌려 구설수에 오른 허식(66) 인천시의회 의장이 이번 논란은 누명 씨우기에 불과하다며 의장 불신임안 철회를 요구했다.

허 의장은 21일 오후 인천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일 현충탑 참배 후 의장 차량에 놓인 5·18 특별판 신문을 보고 한 시의원이 달라고 해 줬고

일부 의원이 자신도 달라고 해 구해주겠다고 했다"며 배포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여러 의원 동의를 받고 40부를 배포하되 상임위원장 재량껏 배포하도록 지시한 것뿐"이라며 "신문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누구와도 5·18에 대해 가타부타 이야기를 나눈 적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지역 언론

"제2 탄핵 사태 우려"…의장 불신임안 철회 요구

훼한 극우 매체 신문을 시의원 전원에게 배포했다는 논평과 기사를 잇달아 내 악의적인 여론을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인천시의원들이 의회에 제출한 의장 불신임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법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허 의장은 "계속 밀어붙인다면 불신임 효력을 가져온 신청은 물론 저를 고발한 도구로 쓰인 5·18 특별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등 모든 행동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적 경쟁자인 민주당 요구에 굴복해 자당이 배출한 의장을 불신임한다면 법적 탄핵 사유가 미약한 박근혜 대통령을 자당 소속 의원들이 앞장서서 탄핵한 사건처럼 불행한 제2의 탄핵 사태로 비화할 것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허 의장은 앞서 지난 2일 동료 의원실

에 특정 언론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해 논란을 일으켰다. 모두 40면으로 제작된 신문에는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거나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주장이 담겼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허 의장은 논란이 거세져 자신의 징계를 논의할 인천시당 윤리위원회 개최가 예고되자 지난 7일 탈당했다.

이후 의장직 자진 사퇴를 요구하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함께 지난 18일 허 의장 불신임안을 의회사무처에 접수했다.

의장 불신임안이 오는 23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 의원과 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면 허 의장은 즉시 의장 직을 상실하게 된다.

/ 송진영 기자

해당 날짜에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 원장과 신모 전 경기도에너지센터장이 만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거짓 시나리오'를 만들어냈다고 검찰은 본다.

이씨와 신씨는 애초 "그날 김씨를 만난 기억이 없다"고 했지만, 서씨와 박씨 등의 설득에 따라 위증을 승낙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위증 계획이 당시 구치소에 수감돼있던 김씨에게도 속속 보고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내용은 경우 김씨가 직접 방향을 지시한 정황도 확보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지난해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날짜의 혼선을 가지고 모략한다"며 위증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만난 시점의 기억이 불분명한 가운데 이씨가 그날 만났다고 증언한 만큼 자신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주장한 것뿐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은 위증 계획을 보고받은 김씨가 구치소에 접견 온 변호인에게 "그날 분명히 이씨와 신씨를 만났다"며 힘을 폭행한 혐의로 또 입건됐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정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전날 오전 5시께 자택에서 술에



군 후임 때리고 머리박아

가혹행위 때 '상관 모욕' 구호도 시켜

1심, 20대 선임에 징역형…법원 "폭행죄로 소속 변경되고도 또 가혹행위"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폭행하고 소속 부대 상관을 모욕하는 내용의 구호를 후임병에게 복창하게 하면서 팔굽혀펴기 가혹행위를 시킨 20대가 결국 전과자로 전락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위력 행사 가혹행위, 폭행, 상관 모욕 등 4가지 죄명으로 불구속기소 된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3년 전 군 복무 당시인 2021년 11월 26일 오전 소속 부대 식당 내에서

근무 중인 후임 B(19) 일병을 불러낸 뒤 '근무에 늦게 나왔다'며 멱살을 잡아 옆 걸음가량 끌고 온 뒤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9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0월 말~11월 초에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B일 병에게 흙바닥에 머리 박아를 30분간 두

/ 박보현 기자

검찰 '김용, 알리바이 위증 계획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 판단

체포 직후부터 TF 조직해 대응 정황…치밀한 시나리오 작성 의심

검찰이 김용(58·구속)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치소 안에서 측근들의 '거짓 알리바이 위증'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까지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 항변하는 김용

씨의 금품 수수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것을 공소사실의 '약점'으로 보고 짐증 공략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TF 구성원들은 김씨만이 아니라 대선캠프 관계자 등 주변 인물들의 일정까지 한데 모아 '김용 일정표' 파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굳이 김씨만이 아니라 주변 인사들의 일정까지 취합한 것은 처음부터 알리바이를 조작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검찰은 의심한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서모씨가 1월 1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씨 측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4월 검찰이 금품수수 일자를 '2021년 5월 3일'로 특정하자, 이들이 취합해둔 자료 가운데

/ 양승준 기자

전 야구선수 정수근, 이번엔 아내 폭행 혐의로 입건



전직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 씨

취해 골프채로 아내 A(34)씨의 이마를 1회 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정씨를 체포했다.

그러나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정씨를 귀가 조처했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정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에게 술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경찰은 최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 김정훈 기자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기계의 기회를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침체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우후 저월용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 OnBid(온비드)

제기금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

• 기업구조혁신펀드

• 캠코 선박금융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中, 대만 라이징더 20년만 최약체 총통 예상…희망과 기회 봐”

홍콩매체 “대만 국회서 야당의 견제와 균형, 라이징더에 골칫거리 될 것”

중국이 최근 대만 대선과 총선에서 독립 성향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이 부진한 성적을 거둔 것을 두고 희망과 기회를 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중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20일 보도했다.

SCMP는 “민진당에 대한 대만 입법원에서의 낮은 지지와 라이징더에 대한 젊은 유권자들의 낮은 지지로 중국에서는 향후 4년간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이 커졌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 전문가들은 라이징더가 거의 20년 만에 최약체 총통이 될 것이라며 독립 여전(여전히) 촉진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대만 국내외에서 도전받고 억제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라이징더의 승리가 중국의 대만 통일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지만 분석가들은 입법원(국회)에서 야당의 견제와 균형이 라이징더에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대만 민진당은 지난 13일 총통선거에서 라이징더 후보가 득표율 40.05%(558만 6천표)로 친중 제1 야당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득표율 33.49%·467만 1천표), 제2야당인 중도 민중당 커원저 후보(득표율 26.46%·369만표)를 제치면서 승리했다.

그러나 라이징더 후보가 득표율 40%

직전 2020년 선거 때 차이잉원 현 총통이 57%(817만표)를 얻어 약 264만표 차로 재선에 성공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또한 해당 득표율은 1996년 대만에서



지난 13일 대만 대선에서 승리한 라이징더 집권 민진당 당선인

총통 직선제가 실시된 이래 두 번째로 낮다고 SCMP는 설명했다.

아울러 민진당은 대선과 같은 날 치러진 입법원(국회의원) 선거에서 113석 중 51석을 얻어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국민당이 52석, 민중당이 8석, 무소속이 2석을 각각 가져가 여소야대가 됐다. 민진당은 앞서 2020년 선거에서는 61석을 차지했다.

니옹제 상하이 대만연구소 소장은 대만 유권자의 60%는 민진당을 권력에서 끌어내리고 싶어 했다며, 민진당이 입법원에서 4년 전보다 10석을 잃으면 향후 대만의 정치 초점은 입법원에 맞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SCMP에 “라이징더는 민진당이 야당을 분열시키고자 총력을 기울인 끝에야 민진당의 기반을 유지했다”며 “이는 민진당이 단합하지 않았고 라이징더가

당내 정치적 힘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커원저가 젊은 층의 인기를 기반으로 예상보다 높은 26.45%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민중당이 입법원에서 8석을 확보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 것은 중국에 희망과 기회가 되는 시나리오라고 해석했다.

주총령 베이징연합대 대만연구원 소장은 라이징더의 득표율은 민진당의 지난 8년 통치에 대한 대만인들, 특히 젊은이들의 불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년 전 차이잉원 현 총통을 지지했던 많은 이들이 이번에는 커원저에게 돌아섰다고 짚었다.

그는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가 득표율 33.4%에 그친 것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거나 커원저를 대신 선택함으로써 국민당의 독단주의에 대한 명백한 증오를 표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민중당이 두 양대 정당 사이에서 신중하게 균형을 맞추며 유세 기간에 제안했던 정치 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명을 요구한 한 중국 전직 관리는 SCMP에 “라이징더는 차이잉원보다 더 급진적 독립주의자이지만 낮은 득표율과 입법원 다수당 지위 상실로 차이잉원과 같은 정치적 힘을 갖지는 못한다”며 “라이징더가 대만 독립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려고 해도 제한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라이징더가 집권하면 양관계는 분명히 불안정해지겠지만 그는 대만 여론과 입법원, 대만해협의 현상 유지를 원하는 미국에 직면해 이전의 ‘탈 중국화’ 발언들에서 후퇴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 관리는 대만 대선 직후 미국 대표단이 현지를 찾은 것에 대해 “그들의 목적은 라이징더에게 일을 망치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니 소장도 “미국은 라이징더의 입장에 매우 우려하고 있고 그의 행동을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라이징더 집권 4년간 양안 관계의 긴장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면서도 중국이 당근과 채찍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봤다. 중국은 대만 선거를 앞두고 군사, 경제, 국제적 압력을 통해 대만을 압박하면서도 ‘푸젠성 양안 융합 발전 시범구’를 추진했다.

/ 이종석 기자



공안관서 습격사건 용의자 체포

베트남 ‘공안관서 습격사건’ 100명에 징역형…10명 종신형

작년 6월 중부 닥락성서 9명 사망…법원 “국가 전복 시도”

지난해 베트남 중부 닥락성에서 발생한 공안관서 습격 사건과 관련해 100명이 징역형을 받았다. 이 중 10명에게는 종신형이 선고됐다.

당시 공안 대원 4명, 현장에 있던 지역 공무원 2명과 민간인 3명 등 9명이 목숨을 잃었다.

공안은 용의자 검거 과정에서 총기 23정과 수류탄, 탄환 1천 200발, 폭발물 재료 1.2kg과 흉기 등을 압수했다.

체포된 용의자 중에는 미국에 근거지를 둔 테러 조직의 일원도 포함됐다고 당국은 밝혔다.

베트남 중부 고원지대에서는 여러 소수민족이 거주하면서 종교 자유와 토지 소유권 등을 요구하며 정부에 맞서왔다.

/ 최병훈 기자

인니, 보잉737 맥스9 운항 재허용…“사고기와 구성 달라”

인도네시아 정부가 운항을 전면 중단했던 보잉 737 맥스9 항공기의 운항을 재허용했으며 현재 정상 운항 중이라고 밝혔다.

21일(현지시간) 자카르타 포스트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지난 6일 라이온 에어가 운항하던 보잉 737 맥스9 항공기 3대의 운항을 중단시킨 뒤 전면 검사를 실시했으며 문제가 없어 지난 11일부터 다시 비행을 허용, 현재 정상 운항 중이라고 밝혔다.

교통부는 사고가 났던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737 맥스9 항공기는 동체 중간에 ‘도어 플러그’(door plug)가 있지만 라이온 에어의 항공기는 정식 출입구를 갖고 있어 구성이 다른 비행기라고 설명했다. 도어 플러그는 창문과 벽체로 이뤄진 일종의 뒷개다. 더 많은 좌석을 배치하기 위해 기체 중간에 있는 비상구를 막는 데 쓰인다. 앞서 지난 5일 알래스카 항공이 운영하는 보잉 737 맥스9 항공기에서 운항 중 도어 플러그가 통째로 뽑혀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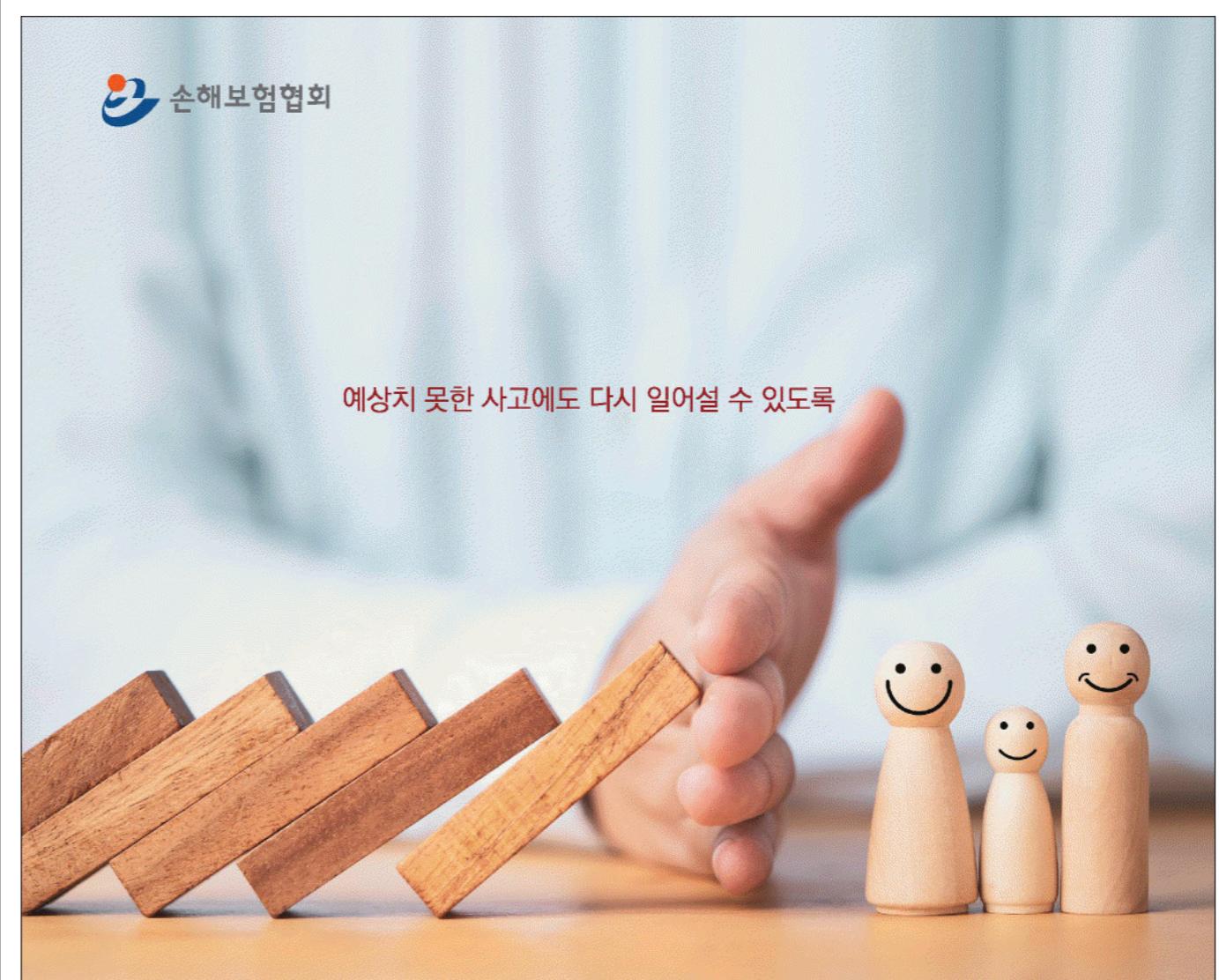
사고 이후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자국 내 해당 기종 항공



비행 중 구멍 낸 보잉 737 맥스9 항공기

기 171대의 운항을 전면 금지했으며 멕시코의 아예로멕시코, 튀르키예 항공사인 터키항공, 인도네시아의 라이온 에어 등 다른 국적 항공사들도 점검을 위해 동종 여객기 운항을 중단한 바 있다. 보잉 737맥스는 인도네시아와 악연이 깊은 모델이다. 2018년 10월 라이온 에어의 보잉 737맥스 8 여객기가 바다에 추락하면서 탑승한 189명이 전원 사망했다. 당시 FAA와 보잉은 소프트웨어 결함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 김현준 기자

예상치 못한 사고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해보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독일 반극우 시위

전국서 25만명 거리로



독일 극우 세력의 회동에서 이민자 추방이 논의됐다는 언론 보도를 계기로 불거진 항의 시위가 점점 확산하고 있다.

AFP 통신은 20일(현지시간) 독일 전역에서 약 25만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독일의 금융 중심도시 프랑크푸르트에

서는 3만5천명가량의 시민이 “AfD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자” 등의 구호를 내걸고 행진했다. 북부 도시 하노버에서 열린 집회에도 비슷한 인원이 모였는데 일부 참가자들은 “나치는 가라” 등이 적힌 포스터를 들었다. 도르트문트, 에르푸르트 등 다른 여러 도시에서도 시민들이 대거 거리로 나왔다.

/ 권도혁 기자



대한민국 축구와 교보생명의 팀플레이이는 계속된다

꿈만 같던 4강 신화를 이뤄냈던 그 시절에도
잘 싸웠지만 패배의 눈물을 흘려야 했던 그 날에도
힘난한 경우의 수를 뚫고 가슴 뜨거워졌던 그 새벽에도
2002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축구 곁엔
언제나 교보생명이 함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보생명은 경기장 밖, 또 하나의 플레이어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과
변함없이, 함께 뛰겠습니다

LG전자, 'AHR 엑스포 2024'서 고효율 공조 솔루션 대거 선보여



LG전자가 가정용과 상업용, 핵심부품에 이르기까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맞춤형 고효율 공조 제품을 앞세워 북미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모델이 미국 시카고에서 22~24일(현지시간) 열리는 북미 최대 공조전시회 'AHR 엑스포 2024'에서 주거용 전기화 솔루션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맞춤형 고효율 공조 제품을 앞세워 북미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LG전자는 오는 22~24 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공조전시회 'AHR 엑스포 2024'에서 고효율 공조 솔루션을 대거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LG전자는 총 575m² 규모의 전시 부스를 마련, 글로벌 전기화와 친환경 트렌드

에 맞춰 주거용 전기화 솔루션, 상업용 공조 솔루션, 부품 솔루션 등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토클 솔루션을 제시한다. 핵심 부품 기술력인 '코어테크'를 내세운 LG전자는 특히 한랭지에서도 안정적인 난방을 제공하도록 독자 개발한 R1 컴프레서를 소개한다.

전시에서는 북미 목조가옥 구조에 적합하게 설계된 1방향 천장형 실내기, 수

평·수직 방향 등 주거 공간에 맞춰 설치할 수 있는 에어핸들러 히트펌프, 에너지 스타 인증을 획득한 인버터 히트펌프 온수기 등 다양한 주거 제품을 선보인다. 고객은 LG 씽큐 앱으로 주거용 냉난방 장치 등 공조 솔루션으로 물론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다.

상업용으로는 독자 개발한 고효율 인

버터 컴프레서를 적용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시스템 에어컨 '멀티브이 아이', 냉난방과 냉온수를 공급하는 대형 공조시스템인 '인버터 스크롤 히트펌프 철라' 등을 전시한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이르면 올해 2분기부터 히트펌프 기술이 적용된 냉난방기와 가전 구입 시 세금 공제나 보조금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어서 LG전자의 히트펌프 기반 제품도 주목받고 있다고 LG전자는 전했다.

한편 LG전자는 최근 흑한에서도 고성능을 내는 냉난방 공조 제품을 연구·개발하기 위해 미국 알래스카에 'LG 알래스카 히트펌프연구소'를 신설한 바 있다.

이재성 LG전자 H&A사업본부 에어솔루션사업부장(부사장)은 "탈탄소화 전기화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며 북미를 포함한 글로벌 공조 시장을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송원기 기자



롯데면세점은 지난 19일 싱가포르 창이공항점 그랜드 오픈식을 진행했다. 사진은 원쪽 세번째부터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리서우항 창이공항그룹 대표이사, 롯데면세점 모델 이준호

롯데면세점, 싱가포르 창이공항점 그랜드 오픈…‘해외공략 확대’

'멜론 음원서비스 중도해지 기능'

숨긴 카카오…과징금 1억원

음악 스트리밍 등 온라인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800

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틲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기 결제형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했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

지로 구분된다. 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된다.

반면 일반해지는 이용 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카카오는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됐다. 해지를 신청한 소비자에게 일반해지 신청인지, 중도해지 신청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이런 행위가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거래 질서 기반 마련될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광도현 기자

고 창이공항점 정상화를 기반으로 해외 매출을 연간 1조원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롯데면세점은 창이공항점에서 주류와 담배 품목을 단독으로 판매한다.

맥캘란, 글렌피디 같은 싱글몰트 위스키와, 와인, 보드카 등 430여개 브랜드를 선보인다. 로보틱 바텐더와 대형 미디어, K팝 스타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스마트 미러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체험 요소도 강화했다. 롯데면세점은 창이공항점을 중심으로 세계 주류 면세시장을 선점해나갈 방침이다.

다음 달 16일까지는 모엣 헤네시 팝업 스토어를 열고 한정판 제품을 선보인다.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오픈식에서 "창이공항점은 롯데면세점이 글로벌 트레블 리테일 기업으로 웤던점프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양희진 기자

LH, 중대한 구조적 부실 유발 업체 입찰시 ‘실격’ 처리한다

건설혁신안 발표…품질관리처 신설해 현장관리·안전점검 등 강화



지난 19일 경기 화성향남2 A22BL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한 이현준 LH 사장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의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 공사(LH)에 '품질관리처', '스마트건설처' 등이 신설된다.

특히 중대한 구조적 부실을 유발한 업체는 향후 입찰 시 실격 처리된다.

LH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5개 부문에서의 44개 과제를 담은 건설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LH는 품질관리를 혁신하기 위해 본부에는 품질관리처를, 지역본부에는 품질전담부서를 두기로 했다. 이를 조직은 품질시험 점검관리, 레미콘 등 주요 자재의 품질시험, 공장 겸수를 상시 수행하고 현장을 직접 관리한다.

현재 서류·마감 위주로 진행되는 준공

검사는 비파괴 구조 검사 및 안전점검보고서 교차 확인 등으로 바뀐다. 또 정기 안전점검은 기존 3회에서 5회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철근이 포함된 부재 자체를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정을 표준화해 현장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LH는 스마트건설처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 디지털화를 본격 추진, 부실시공 문제를 없애고 주택 품질을 높인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 2025년까지 3차원 가상 공간에 설계·시공 정보를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건축정보모델(BIM) 기반 플랫폼 구축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운영 ▲ 설계 도면 및 영상기록 일반 공개 등을 추진한다. LH는 또 '책임 건설'을 위해 중대한 구조적 부실을 유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시 실격 처리한다.

/ 오정민 기자

삼성전자·통신 3사, 갤럭시 S24 시리즈 체험공간 운영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가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 출시를 기념해 체험공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튜디오'라는 이름의 체험공간을 18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와 서초구 센트럴시티, 삼성 강남, 마포구 삼성스토어 홍대 등 4곳에서 '실시간 통역', '서를 투서치', '프로비주얼 엔진'을 탑재한 카메라, '생성형 편집' 등을 핵심 인공지능(AI) 기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음식, 도서, 패션, 반려동물, 게임, 여행 등을 주제로 한 브랜드 협업 프로그램도 차례로 공개한다. 갤럭시 스튜디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삼성닷컴을 확인하면 된다.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모두의 핫플레이스부터 나만의 취향 공간까지 다채롭게 준비한 '갤럭시 스튜디오'에서 일상생활을 더 쉽고 편하게 만들어주는 AI 스마트폰의 세계를

직접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서울 마포구 홍대 T팩토리 2층에 갤럭시 S24 체험공간을 마련했다. 이곳에서 갤럭시 S24 시리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SK텔레콤의 인공지능 비서 '에이닷'의 주요 기능도 함께 체험할 수 있다. 에이닷 애플리케이션과 연계해 '새해 행운카드' 프로모션, 'T데이' 이벤트도 진행한다.

서울·수도권 대형매장 10곳에도 'AI 존'을 설치해 서를 투서치, 실시간 통역, 생성형 편집 등 갤럭시 S24 시리즈의 인공지능 기능을 집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공식인증 대리점 2천700여 곳에도 'S존'을 구축해 인공지능 등 갤럭시 S24 시리즈의 전반적인 기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추첨을 통해 총 2천424명에게 한정판 제품과 아메리카노 쿠폰 등을 경품으로 증정한다.

/ 손지환 기자

Samsung
 Financial Networks

당신의 경험 최고의 경력

삼성생명 GFC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움직여본 경험
많은 사람들, 다양한 생각들을 이끌어본 경험
위기에 맞서 헤쳐나갔던 경험
경력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당신의 경험으로 답하세요

삼성생명 GFC에 지원하세요

삼성생명 GFC(Group Financial Consultant)는 단체보험 컨설팅으로 기업복지 증진시키고 임직원 보상/문화설계를 제안하는 기업보험 전문 컨설팅입니다.

본광고는 임직원채용이 아닌 컨설팅 모집광고임
준법감시필 23-2320호 (브랜드광고파트, 2023.10.17 ~ 2024.10.16)

GANGWON
2024
YOUTH OLYMPIC GAMES

kt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대회
성공개최를 KT가 함께 응원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KT

KT 하이오더

- 테이블 회전율 개선 · 운영비 절감
- 다양한 결제수단 · 외국어 지원
- KT의 안정적인 네트워크 · 직영 설치

하이오더란?
손님이 테이블에서 직접 주문과 결제 가능한 프리미엄 테이블 오더 서비스

상품문의 1588-0114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통…재정운용 효율·투명성 강화

지방재정 ‘e호조’ 등 6개 서비스…1천여개 분산 시스템→클라우드 환경 통합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전면 개통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 재정 운용과 지방보조금 교부·집행에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달 2일 개통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2008년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별로 분산돼 사용돼 였던 기존 ‘e호조’ 시스템이 모두 클라우드 환경으로 통합됐다.

1천여개 시스템의 내·외부 연계를 통해 분산된 구조에서 개별적 업무수행을 하던 환경에서 통합과 융합, 협업에 바탕을 둔 서비스로 전환에 이뤄지게 됐다. 차세대 시스템은 ‘e호조+’와 ‘정책도움’ 등 공무원 전용 2개 서비스와 대민을 위한 ‘보탬e’, ‘지방재정365’, ‘e호조+빌’, ‘주민e 참여’ 등 총 6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재정을 운영하는 ‘e호조+’는 국가 재정(e나라도움), 교육재정(K-에듀파인), 사회복지시스템(행복e음), 지자체 금고 등과 연계해 예산 집행과 계약 및 자금·자산·부채·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등이 가능하다.

‘e호조+’를 통해 2023년 주민과 지역 상공인 등에게 계약지출금, 복지급여 등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내빈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4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통식에서 개통 의식을 하고 있다.

451조 자금을 집행했고, 올해 468조 원의 지자체 예산편성이 완료됐다.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는 ‘보탬e’ 시스템은 수기로 관리하던 지방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금 교부·집행, 사업 정산 등 지방보조사업 업무 전 과정을 정보화했다.

‘보탬e’를 통해서는 보조사업자 온라인 자격 검증, 지자체 간 유사·중복 사업 확인, 부정수급 의심사례 모니터링 등이 가능해져 보조금 누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정책도움e’는 2008년부터 축적된 지자체의 지방재정 데이터와 지역경제·사회 데이터

터를 한곳에 모아 지자체 간 비교·활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제공해 공무원의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비대면 전자대금청구인 ‘e호조+빌’은 기존 종이 서류를 작성해 관공서에 제출하는 절차를 비대면·온라인으로 간편화했다.

‘주민e 참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전자투표·사업진행 현황 확인·챗봇 상담서비스 제공 등으로 주민 참여예산의 관리와 공개를 지원한다.

지방재정 통합공시·정보공개를 제공하는 ‘지방재정365’는 기존 홈페이지를 개편해 지방재정 정보와 각종 경제·사회 지

표의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차세대 시스템은 전국 지자체 공무원 약 39만명, 지방보조사업자 최대 30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와 지자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2020년 12월 차세대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작년 12월까지 3년간 작업을 거쳤다. 1단계 예산 편성, 2단계 예산 집행, 3단계 결산 분야까지 가동하며 모든 시스템이 차질없이 개통됐다.

행안부 등은 시스템 서비스 장애에 대해 비해 전산 장비를 이중화로 구축했다. 관제센터를 통한 24시간 모니터링, 다단계 정보보호 체계는 물론 서비스 차질 시에도 핵심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업무연속성계획(BCP) 등 위기 대응체계를 정비했다.

아울러 원격지에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해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달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차세대 시스템 개통식에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지방재정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 강민성 기자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일시: 2024년 1월 19일 11시 | 장소: 제주도청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촉구하는 제주 농민들

제주 농민 ‘필수 농자재 구입 지원 조례’ 제정 촉구

물가 잡으려 무관세 수입 물량 늘리는 정부 비판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하 농민회)은 19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 필수 농자재 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농민회는 필수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생산단계에서 필수 농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의 지속적인 생산 활동을 보장하고, 농가 소득 증가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농민회는 제주도에 제출한 조례안에서 필수 농자재를 농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 정의했다. 기본 품목으로는 종자,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 시설농업용 자재, 사료를 제시했다. 또 농자재 가격이 폭등한 2022년 직전 3개년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인상 폭이 5~10% 이하인 경우 경작 면적이 2㏊ 미만 농가에 20만원을, 2㏊ 이상 농가에 5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인상 폭이 10%를 초과할 경우 2㏊ 미만 농가와 2㏊ 이상 농가에 각각 50만원,

100만원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필수 농자재 구입비 지원 대상 농업인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한정했다.

도지사 소속 심의위원회를 두고 필수 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관한 산출 근거, 지금 시기와 지원 방법, 그 밖에 필수 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농민회는 “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오르려고 하면 모든 물가의 상승 주범으로 몰아 무관세로 농산물 수입 물량을 늘려 가격을 얹으려 한다”며 “잡으라는 물가는 잡지 않고 애면 농민들만 때려잡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민회는 지난해 이미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한 충남 공주시와 전라북도의 사례를 들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도민 발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배동현 기자

광주시, 방직공장터·터미널 개발 연결한 ‘15분 도시’ 구상

강기정 시장, 일본 시찰…“일·주거·놀이 공존 전략 마련”



롯폰기 힐스 시찰

‘아리아케 가든’, 도쿄역과 터미널을 연계한 ‘미드타운 애에스’, 복합쇼핑문화시설 ‘아자부다이 힐스’와 ‘토라노문 힐스’, 도심 재개발지역 ‘다카시마다이라’ 등을 둘러봤다. 일본 대표적 부동산 종합개발회사 사로 최근 20여년간 도쿄의 도심 재개발을 주도한 ‘모리 벌딩’ 관계자도 만나 민관협력형 개발에 대해 논의했다.

시찰단은 걸어서 10분 거리에서 일하고, 배우고, 쉬고, 먹고, 즐기는 연결성이 주목했다. 광주시는 인접한 임동(방직공장), 광천동(종합버스터미널)에서 동시 추진되는 도심 복합개발을 통해 단순 쇼핑을 넘어서 주거, 놀이, 일 등 LPW(Living·Playing·Working) 기능을 15분 거리에 집약하는 ‘도심 속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일과 주거, 교통과 이동, 공간과 건물이 연결돼 결국 사람과 사람

을 연결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며 “일하고 즐기며 삶이 함께하는 ‘LPW’ 공간 중심의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 하겠다”고 밝혔다.

/ 송원기 기자

주류·담배 독점 면세점 운영권 취소에 김해공항 임시매장 추진

듀프리코리아 31일 영업 종료…5월까지 임시매장서 술·담배 판매

김해공항 출국장에서 알짜 상품인 주류와 담배를 독점으로 판매하던 듀프리토마스줄리코리아의 면세점 운영권이 취소되면서 출국장 내 담배·주류가 임시 매장에서 판매될 전망이다.

관세청이 듀프리코리아가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수년간 부정하게 영업했다고 보고 면세점 운영권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3개월간 주류와 담배만 판매하는 임시 매장을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사업자가 세관에 임시 특허를 받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듀프리코리아의 영업이 종료하면 신규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연간 1천 만명이 이용하는 김해공항 국제선 출국장에 술과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특허를 가진 면세점은 없다.

/ 채현수 기자

시찰단은 첨단 복합건물 ‘롯폰기 힐스’를 시작으로 마이스(MICE) 산업 육성과 국제관광 거점지구 조성을 위해 건립된

**KB Pay로 결제되나요?
됩니다!**

다 되는 페이

KB
Pay

세상을 바꾸는 금융

준법감시인심의필 제 230609-02066-ADP (23.06.09)

* KB 국민카드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진짜 하나뿐인 내 편 맞네!”

소상공인과 함께 올고 옷으며
늘 곁에 있는 **하나금융그룹**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상도동 ‘시장떡방앗간’ 윤세권 사장님



소상공인의 하나뿐인 내 편

소상공인분들께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키오스크, AI CCTV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사업명 : **고효율 디지털 기기 지원 사업**

신청기간 : 2024년 1월 22일(월) ~ 2월 23일(금)

신청방법 : **하나파워온** 공식 홈페이지 <https://www.hanapoweron.com>

신청하려 가기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펀크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전남 장성에 외식산업개발원 설립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에게 지역 현황 설명하는 김한중 전남 장성군수(원쪽)

전남 장성군은 백종원 대표가 설립한 주더본코리아가 장성에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을 건립한다고 21일 밝혔다.

장성군 옛 노인복지회관을 활용하는 더본외식산업개발원 장성센터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개발과 교육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백 대표가 지난달 장성을 방문해 센터 예정지와 인접한 황룡시장 등을 답사했다.

장성군은 지난해 9월 주더본코리아와 업무협약을 맺고, 같은 해 11월 예정지 상태를 확인하는 등 더본외식산업개발원 장

성센터 유치를 단계별로 준비해왔다.

오는 9월 개원을 목표로 도시계획 변경, 설계, 공사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도 지원할 방침이다. 장성군은 더본외식 산업개발원 장성센터가 들어서면 지역 음식문화 경쟁력을 높이고 창업·전통시장 활성화 등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장성 만의 특화 음식을 선보이는 민선 8기 공약 ‘장성 5대 맛거리 조성’과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이 상승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 김유정 기자

자율주행으로 서울 새벽 밝힌다…하반기 ‘새벽동행버스’ 출범

새벽 근로자 맞춤형 자율차…첫 차보다 빠른 오전 3시30분 운행

서울시는 새벽 시간대 근로자의 대중교통 편의를 돋기 위해 ‘자율주행 새벽동행버스’를 올해 하반기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연말 정식 운행할 예정인 자율주행 새벽동행버스는 시가 보유한 자율주행 성과와 배차·노선 관리 등 수준 높은 버스 서비스 등 정책 노하우를 결합한 신규 대중교통 서비스다.

앞서 시는 지난달 4일 세계 최초로 ‘심

야 자율주행버스’를 선보이며 대중교통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이라는 성과를 냈다. 이 버스는 심야 이동이 많은 합정역~

동대문역 구간을 운행하며 교통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자율주행 새벽동행버스는 ‘서민 중심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이라는 오세훈 시장



자율주행 새벽동행버스 운행 모습

새벽 출근길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행 노선은 첫차 혼잡이 심하고, 자율주행버스 운행 안전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새벽동행버스는 현재 시내버스 정식 첫차 운행 시간(오전 3시 50분~4시)보다 빠른 오전 3시 30분에 운행할 예정이다.

우선 도봉산역~종로~마포역~여의도 역~영등포역 구간(면도 기준 25.7km)을 운행하는 160번 버스가 첫 노선으로 예상된다.

첫 차가 약 30분 빨라지는 효과가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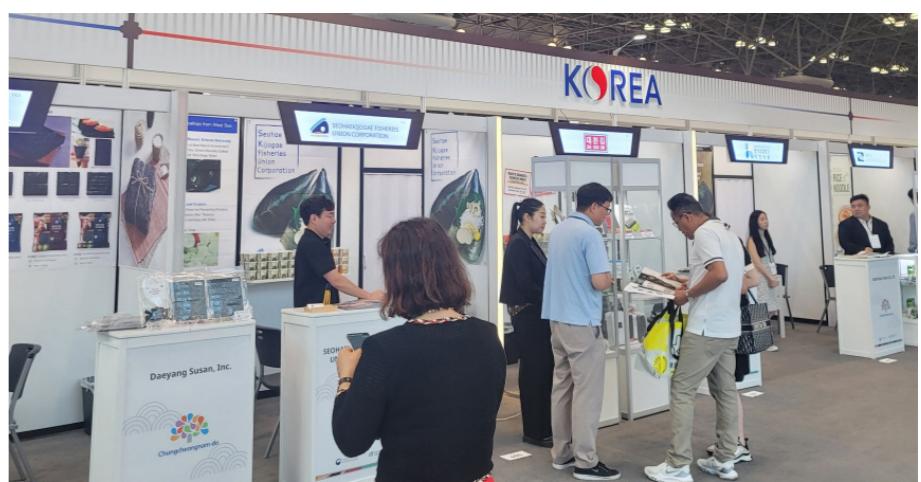
160번 노선은 새벽 첫 차의 최대 차차(在車) 인원이 50명을 넘어 새벽 버스 종 혼잡이 심한 편이다. 또 노선 안전성 및 자율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 교통신호 개방 등 필수 인프리를 구축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7월까지 마무리하고 승객 탑승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후

또 다른 새벽 혼잡 노선인 146·148번(상계~강남·서초) 노선으로 운행을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자율주행 상용화와 연계해 혼잡 노선에 자율주행버스를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최근 높은 수요로 증차 요청이 있었던 8146번 버스도 운행 개시 1주년을 맞아 다음 달 안으로 증차 및 짐증버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가 보유한 우수한 정책 노하우를 접목해 사회적 약자의 생활 편의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민성호 기자



지난해 6월 미국에서 열린 식품박람회

충남 수산 식품 수출 2억달러 돌파

김 품목이 91% 차지

충남의 수산 식품 수출액이 2억달러를 돌파했다. 특히 수출 향상품 김 수출액이 4년 사이에 2배가 넘게 증가하며 수출을 견인했다.

21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수산 식품 수출액은 30억달러(잠정)로, 전년 보다 4.9%(31억 2천599만달러) 감소했다.

반면 도의 수출액은 2억219만달러(2천 700억여원)로, 전년 1억 7천5만달러보다 18.9%(3천214만달러) 증가했다.

이는 전국 수출액의 6.8%를 차지하는 규모로 부산, 서울, 전남, 경남, 경기에 이어 6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지난해 수출액이 2억달러를 돌파한 것은 처음으로, 역대 최고 기록이다. 이 가운데 김 품목이 해외에서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수출액의 91.1%를 차지했다.

조미김은 1억 1천640만 6천달러로 전년 9천620만 1천달러보다 21% 증가하면서 종수출액의 57.5%를 기록했다.

마른김 수출액은 전년(5천531만 3천달러)보다 22.5% 늘어난 6천773만 1천달러

로, 총수출액의 33.5%를 차지했다.

김 품목의 전국 수출액은 7억 9천147만달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도의 수출액은 1억 8천314만 7천달러(23.3%)로 전남 2억 4천878만 8천달러(31.4%)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도가 김을 수출한 국가는 미국이 4천 869만 8천달러(전년보다 18.6% 증가)로 가장 많았고, 중국 4천57만 1천달러(11.1% 감소), 인도네시아 1천806만 7천달러(54.4% 증가), 태국 1천7만 6천달러(27.3% 증가), 베트남 957만 7천달러(47.2% 증가) 순이었다.

김 품목은 2019년 7천508만 8천달러에서 2021년 1억 3천511만달러로 79.9% 급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김 수출이 증가하면서, 도 수산 식품 수출액이 2013년 4천75만달러에서 7년 만인 2020년 처음으로 1억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3년 만에 2억달러를 돌파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 강효진 기자

전국 대중교통비 할인 ‘The 경기패스’ 5월 시행

한도 없고 청년 기준 39세 확대…광역버스·신분당선·GTX도 포함

경기도는 5월부터 전국 대중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The 경기패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7월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K-패스’ 시행에 맞추고자 앞당겼다.

특히 광역버스, 신분당선,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 등도 환급 대상에 포함해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차별화했다.

예를 들어 38세 직장인이 광역버스를 이용해 수원에서 서울까지 통근할 때 월 교통비가 11만2천원 발생하는데 The 경기패

스를 이용하면 30%인 3만3천600원 환급받을 수 있다.

The 경기패스는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The 경기패스 BI를 확정했다. ‘The’와 ‘+’를 형상화해 직장인, 학생, 어린이 등 모든 도민의 일상에 플러스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슬로건은 ‘대한민국 모든 길에 통한다. The 경기패스’로 정해 전국 모든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강조했다.

/ 채정호 기자

여직원 성추행 의혹 양산시의원, 작년 성희롱 예방교육 불참

교육 안 받아도 불이익 없어…피해직원, 수직관계 의회구조 탓 신고 어려워

경남 양산시의회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을 상습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시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수직관계로 인식되는 ‘의원’과 ‘직원’이라는 구조에서 직원은 피해를 당해도 속수무책인 반면 시의원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가 최근 탈당한 양산시의회 A의원에게 2022년 7월부터 1년 넘게 상습 추행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직원 B씨는 “시의회 근무 당시 피해 신고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실상 수직관계 구조 속에 이러한 문제 제기가 문힐 것이란 걱정과 함께 조직 내부에서 성추행 의혹을 공론화하면 2차 가해가 따를 것이란 우려도 신고를 주저하게 했다.

이 때문에 B씨가 할 수 있는 건 당사자에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뿐이었다.

B씨는 “A의원 앞에서 직접 거부 의사

를 겪다가 결국 오랜 시간 일한 근무지를 떠나야 했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고 난 후에 A의원을 신고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직장에서 상습 추행을 당해도 수직관계에 있는 피해자는 제대로 된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A의원은 의정활동에 사용해야 할 업무 추진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면서까지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시의회 누리집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7일 A의원은 양산의 한 고깃집을 방문하고 업무추진비 카드로 10만5천원을 결제했다.

이 내역에는 4명이 현장 의정활동을 했다고 기록됐다.

A의원은 이 내용과 관련해 다른 지인도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B씨는 다른 지인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실제 이 약속 이를 전 A의원은 B씨에게 “할 얘기(비밀포함)도 있고 해서 간만에

돌이 한잔하려는 거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B씨는 장기간 고통

을 겪어야 했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고 난 후에 A의원을 신고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직장에서 상습 추행을 당해도 수직관계에 있는 피해자는 제대로 된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의원은 양산시의회가 지난해 11월 시의원을 상대로 진행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여성 폭력 예방 교육)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 교육에 전체 시의원 19명 중 16명이 참가했다.

의회 관계자는 “해당 교육에 불참해도 의원 개인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했다.

/ 이형철 기자



퇴직연금 1위, 이유가 있습니다

글로벌 ETF를 비롯한 앞선 상품들, 엄격한 리스크 관리,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1위의 차이를 누리세요.

퇴직연금 적립금 증권업계 1위 (2022년 말 기준) | 퇴직연금 자산 20조원 돌파 (2023년 1분기말 기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원리금 보장 및 비보증형 합계금액 공시기준

글로벌 투자 파트너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 연금자산관리센터 1588-5577] ■ 투자자는 금융상품(퇴직연금)에 대하여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DC/IRP]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범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DB]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험률과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작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의기한은 16.5%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DC 자산관리 수수료(후취) 연 0.10%~0.28%, 운용관리수수료(후취) 연 0.10%~0.30% 적립금 별 상이, 자체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IRP 자산관리 수수료(후취) 연 0.1% / 운용관리수수료(후취) 1억 미만: 연 0.2%, 1억 이상~3억 미만: 연 0.18%, 3억 이상: 연 0.15% (장기계약 할인 및 디렉트계좌의 수수료 등 자체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자 제23-01989호 (2023.06.01~2024.05.31)

IBK 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실력 있는
기업들이
마침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가장 진화된 금융으로 기업을 앞으로

1:1 일차 멘토링에서 투자유치까지
IBK 창공

혁신·벤처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디지털 경영 지원 플랫폼
IBK BOX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3947호(2023.08.29) 유효기간(2024.08.28)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02-720-7450 | e-mail : ibkethics@ibk.co.kr

아시안컵, 늘어난 엘로카드…‘경고 변수’ 부담 더 커진 태극전사

요르단에서 오현규·황인범 경고 추가…2차전까지 ‘총 7장’ 누적

64년 만에 아시안컵 정상 탈환에 도전하는 클린스만호가 요르단과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경고 부담’을 털어내지 못하면서 말레이시아와 최종전을 앞두고 ‘엘로카드 적색경보’에 직면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20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앗수마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요르단과의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E조 2차전에서 2-2로 비겼다.

이날 무승부로 한국은 요르단과 나란히 1승 1무(승점 4)를 기록했지만 득실 차에서 밀려 조 2위에 랭크됐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3위인 한국은 요르단(87위)을 상대로 선제골을 뽑고도 동점골과 역전골을 내주며 고전하다가 후반 추가시간 극적인 상대 자책골 덕에 겨우 무승부를 거뒀다.

애초 한국은 역대 전적에서 3승 2무로 크게 앞서는 터라 낙승을 예상했고, 이를 통해 베레인과 1차전에서 얻었던 5장의 ‘무더기 엘로카드’를 효과적으로 소진할



카타르 도하 앗수마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E조 2차전 요르단과 한국의 경기. 후반 추가시간 동점골이 터자 황인범과 손흥민이 기뻐하고 있다.

생각이었다.

클린스만호는 바레인전에서 박용우(알아인), 김민재(뮌헨), 이기제(수원), 조규성(미트윌란), 손흥민(토트넘) 등 주요 선수 5명이 경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대표팀은 요르단전에서 일찌감치 승기를 잡아 점수 차를 벌리고서 이들이 엘로 카드를 받아 경고 누적으로 오는 25일 말레이시아와 3차전에 결장하

고 16강전에는 정상적으로 출전하는 ‘카드 세트’ 작전을 펼칠 공산이었다.

특히 요르단을 꺾으면 16강 진출을 확정하는 만큼 ‘E조 최약체’ 말레이시아전은 대표팀이 카드 부담도 덜고 주요 선수들의 체력까지 아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대표팀의 기대는 요르단의 강한 저항에 꺾이고 말았다.

/ 최준용 기자

WTT탁구 결승 ‘영혼의 콤비’ 맞대결…전지희, 신유빈 꺾고 우승

신유빈-전지희, 여자 복식 결승에서는 함께 정상 올라 ‘활짝’



전지희와 신유빈

월드테이블테니스(WTT) 대회 결승전에서 성사된 한국 여자탁구 ‘영혼의 콤비’ 맞대결에서 ‘언니’ 전지희(33위·미래에셋

증권)가 ‘동생’ 신유빈(9위·대한항공)을 꺾고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전지희는 20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의 루사일 스포츠 아레나에서 열린 WTT 컨텐더 도하 2024 이례째 여자 단식 결승에서 신유빈에 4-3(8-11 11-9 14-16 9-11 18-16 11-8 11-5) 역전승을 거뒀다.

첫 세트는 신유빈이, 두 번째 세트는 전지희가 가져가는 등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아는 두 선수는 불꽃 튀는 대결을 이어갔다.

세 번째 세트에서 연속된 드스 접전 끝에 신유빈이 16-14로 세트를 가져왔고, 기세를 몰아 네 번째 세트까지 따내 우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띠동갑 언니 전지희의 저력도 만만치 않았다.

전지희는 다섯 번째 세트에서 드스를

전반 9분 손흥민의 페널티킥 득점으로 앞서갔지만, 전반에만 2골을 허용하며 끌려갔고, 여유로운 선수 운영 대신 후반 추가시간까지 총력전을 펼친 끝에 어렵사리 2-2 무승부를 만들 수 있었다.

게다가 요르단전에서는 오현규(셀틱)와 황인범(즈베즈다)마저 엘로카드를 받아 말레이시아와 최종전을 앞두고 7명의 선수가 ‘경고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들 7명은 말레이시아전에서 엘로카드를 또 받으면 경고 누적으로 16강 경기에 나설 수 없다.

조별리그 1차전부터 8강까지 경고를 한 차례만 받으면 4강 이후 경고는 초기화된다.

하지만 8강전까지 서로 다른 경기에서 경고 2개가 쌓이면 차지 4강전에 출전할 수 없는 상황도 맞을 수 있다.

클린스만호는 당장 말레이시아전 경고 상황에 따라 핵심 선수가 16강에 출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 ‘경고 관리’가 더 중요해졌다.

/ 최준용 기자



김보근의 남자 싱글 경기 모습

청소년올림픽, 루지 김보근, 남자 싱글 11위 이탈리아 금·동 차지

한국 루지의 기대주 김보근(상지대관)이 8령고(사리율중)-배재성(상지대관령고)이 8위, 여자 싱글에서 김소윤(신명여고)이 9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어 김보근이 또한 번 상위권 성적을 노렸는데, 간발의 차로 ‘톱10’ 진입은 불발됐다.

경기를 마치고 김보근은 “1차 스타트가 다소 아쉬웠지만, 모든 커브를 깔끔하게 타서 만족스럽다. 2차 시기 나서기 전에 감독님, 코치님께 기록을 더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행동으로 보여드려 스스로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대회를 발판으로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향해 가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낸 그는 “힘과 체력을 기르며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박정민 기자

윤(사리율중)-배재성(상지대관령고)이 8위, 여자 싱글에서 김소윤(신명여고)이 9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어 김보근이 또한 번 상위권 성적을 노렸는데, 간발의 차로 ‘톱10’ 진입은 불발됐다.

경기를 마치고 김보근은 “1차 스타트가 다소 아쉬웠지만, 모든 커브를 깔끔하게 타서 만족스럽다. 2차 시기 나서기 전에 감독님, 코치님께 기록을 더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행동으로 보여드려 스스로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대회를 발판으로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향해 가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낸 그는 “힘과 체력을 기르며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박정민 기자

이상호, 스노보드 월드컵 남자 평행회전 4위…시즌 최고 성적



게 0.32초 차로 졌다.

61명이 출전한 예선에서 1, 2차 시기 합계 58초 68을 기록해 15위로 16강에 진출한 이상호는 16강에서 예선 2위 마우리치오 보르몰리니(이탈리아), 8강에서는 예선 10위 롤란드 피슈날러(이탈리아)를 파고 4강까지 올랐다.

하지만 4강에서 예선 3위 다니엘레 바고차(이탈리아)에게 0.42초 차로 졌다. 결승 진출에 실패했고, 3-4위전에서도 패하면서 시상대에 오를 기회를 놓쳤다.

이상호는 그러나 이번 시즌 최고 순위를 기록하며 남은 시즌 전망을 밝혔다.

/ 진성훈 기자

LG HelloVision

Hello rental

지금 사고 나눠내자!

온라인 최저가보다
최대 72% 저렴하게!



※ 최저가 비교기준 : 22년 3월 N사 쇼핑 기준, 삼성TV(KU50UA7050FXKR), KB체험카드 전월 30만원 사용에 따른 할인 적용 시

※ 월 렌탈료는 품목 및 할부 기간에 따라 상의

새로운 가전 구매 트렌드

LG헬로비전 헬로렌탈



상담문의 1855-1082



시청자 몰입시키는 시원한 복수극...‘내 남편과 결혼해줘’ 인기

tvN 월화드라마 2년 만의 최고 성적...화제성 2주 연속 1위

“네가 탐내던 내 쓰레기 네가 처리해.
내 남편과 결혼해줘.”

tvN 월화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 속 대사다. 주인공 강지원(박민영 분)은 친구인 정수민(송하윤)에게 “나 쓰레기 버릴 게 있는데 좀 버려줄래?”라고 부탁 하더니, 잠시 후 수민의 뒷모습을 향해 혼잣말로 이렇게 읊조린다.

남편과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 인생을 바로잡을 두 번째 기회를 얻는다는 내용의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가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을 거듭 갈아치우며 인기를 끌고 있다.

6회까지 방영된 ‘내 남편과 결혼해줘’는 첫 회에 5.2%의 높은 시청률로 출발했다. 이후 시청률은 2회 5.9%, 3회 6.4%, 4회 7.6%, 5회 7.4%, 6회 7.8%를 기록했다. 5회 시청률이 4회 시청률보다 극소하게 낮은 것을 제외하고 매번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tvN 월화드라마의 작년 최고 시청률은 1월 31일 ‘미씽: 그들이 있었다’ 시즌2의 최종회가 기록한 5.9%인데, ‘내 남편과 결혼해줘’는 이를 훌쩍 넘었다. 2022년 4월



26일 방영된 ‘군검사 도베르만’이 10.1%를 기록한 후 tvN 월화드라마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내 남편과 결혼해줘’가 주목받는 것은 시청률이 외의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조사회사 굿데이터코퍼레이션이 따르면 ‘내 남편과 결혼해줘’는 1일 첫 방영 이후 2주 연속 TV-OTT 통합 화제성 지수 1위에 올랐다. 박민영, 나인우, 송하윤은 주간 출연자 종합 화제성 1~3위에 이름을 올렸다.

인기 비결로는 ‘사이다 복수’가 꼽힌다.

이 작품은 악역들 때문에 고통받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준 뒤 시원하게 되갚아주는 전개로 보는 이를 몰입시킨다.

특히 여자친구 또는 아내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민환, 친구를 아끼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이용하는 수민, 갑질 상사 김경욱(김중희)과 왕홍인(정재성) 등이 일단 시청자를 거듭 분노하게 한다.

민환이 지원에게 손찌검하는 모습, 수민이 지원을 응원하며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부분, 경욱과 홍인이 부하 직원들에

게 성희롱성 발언을 내뱉는 장면은 이른바 ‘막장 드라마’ 수준으로 자극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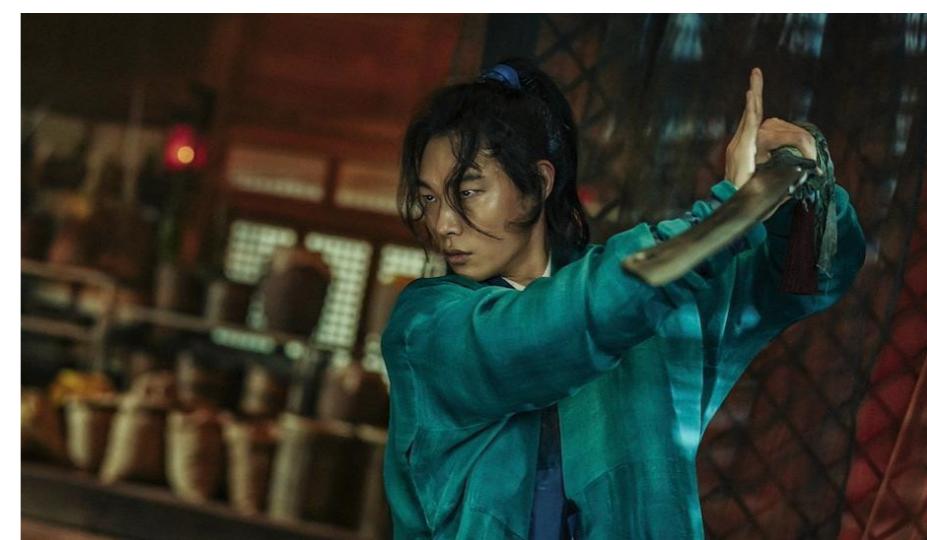
이들의 악행이 한껏 부각된 후 이미 미래를 알고 있는 주인공 지원, 재벌그룹 후계자이자 지원의 조력자 유지혁(나인우)이 비장의 수를 써서 나쁜 짓을 한 인물에게 벌을 준다. 시청자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는 구조로 볼 수 있다.

다만, 악역들의 선을 넘는 행동이 거부감을 유발하기도 한다. 착하고 유능하면서도 쉽게 이용당하는 여주인공과 백마 탄 왕자를 연상케 하는 남주인공의 구도가 진부하다는 지적도 있다.

영화 추천 웹사이트 웃차피디아 이용자들은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 평균 2.9의 평점을 줬다. 이용자들의 게시글에는 ‘고구마와 사이다의 적절한 조화’, ‘재미있다’ 등 호평과 ‘너무 유치하다’, ‘전개가 너무 빠하다’는 악평이 공존한다.

굿데이터코퍼레이션이 발간한 ‘편스리포트’는 시청자들의 반응에 대해 “방송 초반 재미있고 기대된다”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며 “반면 비현실적인 ‘막장’ 작품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다수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 김민경 기자



영화 ‘외계+인’ 2부

영화 ‘외계+인’ 2부 개봉 12일째 100만 관객 돌파

최동훈 감독의 SF 판타지 ‘외계+인’ 2부가 21일 누적 관객 수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배급사 CJ ENM이 밝혔다.

지난 10일 개봉한 지 12일째에 100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개봉일에 박스오피스 정상에 오른 이 영화는 줄곧 1위를 달려왔다.

순위상으로는 순항 중이지만, 관객을 동원하는 힘은 떨어지는 모양새다.

개봉 이후 첫 주말(12~14일) 관객 수는 48만여명에 그쳤고, 이번 주말은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4일 박영주 감독의 ‘시민혁명’이 개봉하면 ‘외계+인’ 2부의 관객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이날 오전 기준으로 예매율은 ‘외계+인’ 2부가 18.8%로 1위를 달리고 있고, ‘시민혁명’(14.5%)가 그 뒤를 끝고 있다.

/ 오정환 기자

YG 걸그룹 베이비몬스터 ‘배터 업’ 뮤직비디오, 2억뷰 돌파



YG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걸그룹 베이비몬스터가 데뷔곡 뮤직비디오로 유튜브 조회수 2억회를 돌파했다.

20일 YG에 따르면 베이비몬스터의 ‘배터 업’(BATTER UP) 뮤직비디오는 전날 오후 유튜브 조회수 2억회를 넘어섰다. YG는 “뮤직비디오 공개 이후 약 53일만”이라며 “같은 조회수를 달성한 연대 K팝 그룹 데뷔곡 뮤직비디오 중 가장 빠른 속도”라고 밝혔다. 베이비몬스터는 내달 1일 두 번째 신곡 ‘스틱 인 더 미들’을 발표한다.

/ 남희정 기자

세계연합신문

www.wunionnews.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175

편집인 조영광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희진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기50142

구독광고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아이유 ‘성소수자 지지 구호 사용’ 논란에 신곡 제목 변경



아이유가 신곡 제목으로 성소수자 지지하는 문구를 사용했다는 논란에 결국 제목을 바꿨다. 소속사 이

담엔터테인먼트는 “24일 오후 6시 발매 예정인 아이유의 신곡 ‘러브 윈스’(Love Wins) 제목을 ‘러브 윈스 올’(Love wins all)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기존 제목인 ‘러브 윈스’가 그간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문구로 사용돼 왔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처음 불거졌다.

누리꾼들은 ‘러브 윈스’ 구호가 기존 의미와는 다른 이미지로 대체되고, 그 상징

성이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일부 팬은 이런 비판이 지나치다고 반응하기도 했다. 아이유는 곡의 의미를 고려해 제목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소속사는 “곡 제목으로 인해 중요한 메시지가 흐려질 것을 우려하는 의견을 수용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두를 더욱 존중하고 응원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발매될 곡에 담은 메시지와 가장 반대되는 지점의 말이 있다면 그건 혐오”라며 “혐오 없는 세상에서 모든 사랑이 이기기를, 누구에게도 상처 되지 않고 곡의 의미가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 민지영 기자

SNL코리아 시즌5 제작...첫 호스트는 ‘소년시대’ 임시완



쿠팡플레이어는 코미디 프로그램 ‘SNL코리아’ 시즌5 제작을 확정했으며 첫 호스트로 배우 임시완이 출연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쿠팡플레이어는 “임시완이 ‘소년시대’를 통해 선보였던 능청스러운 ‘코믹 포텐’을 아낌없이 쏟아낼 예정”이고 설명했다.

임시완은 작년 11~12월 공개된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드라마 ‘소년시대’ 주연으로 출연해 진한 충청도 사투리와 코믹

연기를 선보였다. 이 드라마는 쿠팡플레이에서 7주 연속 인기작 1위를 차지하며 흥행했다.

‘SNL코리아’는 미국 NBC의 장수 코미디 프로그램 ‘SNL’(Saturday Night Live)의 라이선스를 받아 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유명 스타가 서슴없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임시완은 “‘소년시대’의 장병태로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저의 인생 캐릭터가 탄생했다”며 “‘SNL코리아’ 시즌5를 통해 ‘소년시대’에서 보여드렸던 제 코미디 본능을 무대에서 남김없이 쏟아내겠다”고 말했다.

‘SNL코리아’ 시즌5 첫 회 공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노성윤 기자

2024 설 특선

더 현대적인 선물

시대의 스승, 야구 감독 김성근에게 설 선물이란 신뢰와 존경으로 쌓은 명절 선구안입니다.

“늘 묵묵하게 열심히 하는 선수에게 마음이 가기 마련이지요.
오래 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전하는 야구를 하길 바랍니다.”

- 김성근 감독

풀스토리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 H.point

현대백화점 | 현대아울렛 | 현대백화점면세점 | 더현대마트 | 현대홈쇼핑 | 현대나물 | 현대그린푸드 | 한섬 | 더한섬마트 | 현대리바트 | 현대L&C | 자누스 | 현대전기케어 | 현대드림루어 | 현대어린이책미술관

THE HYUNDAI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금융을 새롭게 신한이 한다

은행, 카드, 증권, 보험
이제 슈퍼 SOL 하나로 끝

왔다가 갑자기 필요없이
한번에
전짜 다 돼?

나를 중심으로
모든 기능이
싹—다 모였어!

슈퍼하게 쉽고
슈퍼하게 빨라서
이것만 쓰면 될걸?

꼭 필요한
기능만 어제처럼
모여줄까?



은행부터 카드, 증권, 보험까지
신한의 모든 금융네트워크를 한 곳에서